

## 인천상륙작전과 냉전문학의 좌표: 전쟁신화와 사실(fact)의 관계

—윤태호의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으로\*

이 선 미\*\*

### 요약

냉전의 세계질서가 무력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남과 북이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 놓여있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을 대표하는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신화를 연상시키는 사건이다.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맥아더 신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상 체계는 상식적인 대중 관념이 되었으며, 역사교육 현장의 중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인천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맥아더를 떠올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이다. 2016년 상영된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등장하는 맥아더와 그를 존경하여 군인이 되고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한국군 장교와의 관계 역시 맥아더 신화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 1957년 인천 만국공원에 맥아더 동상이 세워질 무렵이나 2016년 탈냉전의 시대이나 맥아더 신화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냉전구조 한켠을 차지하는 냉전의 상징이다.

그러나 탈냉전의 정치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러 방면의 변화를 만들었으며, 맥아더 신화와 같은 냉전적 전쟁인식을 교정할 수 있는 자료와 관점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사회운동 분야, 연구분야, 나아가 국가제도 차원에서 냉전을 고착화하는 한국전쟁 인식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사실(fact)'들이 밝혀지고 공론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국가적 진실규명 과정에서 뒤늦게 월미도 민간인 공중폭격도 사실로서 규명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배경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생겨나기도 했다. 윤태호의 <인천상륙작전>은 '전쟁 서사'의 형

\* 이 연구결과물은 2017학년도 경남대학교 대학특성화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식으로 2000년대 이후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사실(fact)’ 논쟁을 정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친일부역자인 주인공 상배는 친일부역을 만회하기 위해 반공주의자로 살아남는 비겁한 밀고자의 삶에 적응하고, 이념의 편 가르기가 사실상 권력의 편에서 살아남는 과정임을 터득해간다. 그러나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자의식의 순간들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공중폭격’의 살인을 통해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승리의 전쟁으로 신화화된 인천상륙작전의 또 다른 ‘사실(fact)’을 전면화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다. 부역자/밀고자 프레임을 정식화하는 계기가 된 서울 수복, 그 결정적 전투였던 인천상륙작전은 도강파/잔류파를 만드는 이승만 정권의 냉전 정치 시나리오에 의해 미공군의 월미도 민간인 공중폭격마저 적군을 전멸시키는 혁혁한 승리의 성과로만 기억하도록 기록되었다. 냉전문학을 대표하는 인천상륙작전 서사물들은 이 냉전의 전선인식과 승리의 경험으로 전쟁 관념을 만들었다. 윤태호의 〈인천상륙작전〉은 사실 복원의 방식으로 전쟁 신화적 전쟁서사에 그늘을 드리운다. 그리고 이 진실규명 차원의 ‘그늘(이면적 인식)’은 작지만, 냉전의 구조를 흔들고 전쟁 자체를 성찰하게 하는 평화의 상상력을 향한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인천상륙작전, 전쟁신화, 사실(fact), 윤태호, 부역자, 밀고자, 공중폭격, 월미도

목차

1. 인천상륙작전의 사실(fact)과 탈/냉전 전쟁 서사
2. 한국전쟁의 앎(지식), 사실(fact) 복원의 가능성과 인천상륙작전
3. 친일부역자/밀고자로부터 시작되는 〈인천상륙작전〉
4. 맥아더 신화를 교란하는 월미도 공중폭격 사실(fact)과 문학
5. 인천상륙작전의 ‘그늘’을 인정한다는 것, 탈냉전과 평화의 감각 만들기

## 1. 인천상륙작전의 사실(fact)과 탈/냉전 전쟁 서사

한국전쟁 관련 영화로서는 전투장면이나 주제의식, 영화적 미학 등에서 최고로 꼽히는 1963년 이만희감독의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인천상륙작전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천에 상륙하는 해병들이 항구에 마련된 적의 진지를 공격하여 퇴각하지 않은 인민군을 소탕하고 어린 소녀를 구해내는 첫 장면부터 긴장과 감동 속에서 한국군의 영웅성을 한껏 고조시킨다. 장엄한 승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전쟁신화에 해당하는 장면이다. 인천에 상륙하는 군인들의 모습은 미군이 주력이었던 현실 전투와 달리, 한국군 병사들을 내세워 장엄한 이미지를 한국군의 것으로 전유한다. 그리고 시체들이 널부러진 잔혹한 학살의 현장은 그 희생자가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처형한 남한의 군인이나 경찰관련 친족들이 밝혀지면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이어 점령 후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한국군의 영웅적인 전투성과 인민군의 잔혹한 학살, 그것에 대한 보복의 과정은 수순처럼 자연스럽게 냉전사회의 전쟁신화를 내면화하는 전쟁문학으로 수렴된다. 선과 악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며, 남한과 북한으로 영역화되고, 영웅적인 대응과 보복의 과정은 수순처럼 냉전문학의 문법을 실현한다. 그나마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승리를 확신하며 전진을 외치는 전쟁논리를 회의하고, 적과 이를 구분하지 않고 ‘죽음’을 사유한다는 점에서 전쟁신화적 서사를 넘어서지만,<sup>1)</sup> 한국전쟁 승리의 신화로서 인천상륙작전을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냉전문학의 자

1)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적대감을 고조시켜 반공/승공의 전투의지를 고양시키는 냉전문학의 문법과는 달리, 전쟁 자체를 회의하는 허무주의적 자의식이 돋보인다. 인천상륙작전에서부터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까지의 전쟁을 다루는 영화는 전쟁이 지속될수록 전선이 구별되지 않고, 죽음만 확인될 뿐인 전쟁의 비참에 주목한다. 주인공의 “죽어지지 않아서 살 뿐이다”라는 대사는 이런 허무주의적 전쟁관이 드러나는데, 냉전문화사에서 독특하게 평가될 대목이다. 정영권, 『남북한 전쟁영화의 민족 재현 비교연구: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과 <월미도>(1982)를 중심으로』, 『씨네포럼』, 2010.12 195면 참조.

장 안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세계대전으로 변질 수도 있는 전면전의 양상으로 변화한다. 인천상륙작전은 9월 15일 적진에 해당하는 인천 지역을 역습함으로써 패전 직전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켜 승기를 잡게 되는 전투이다. 북한군의 점령 3개월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부산으로 피난갔던 정부가 환도하면서 새롭게 전쟁의 질서가 뒤바뀌고, 점령지의 부역자처리와 복진, 중공군의 개입 등 이후 새로운 전쟁 상황으로 건너가게 만든 전투이다. 전쟁의 판세를 뒤집은 결정적 전투였던 만큼 그와 관련된 역사적 담론이나 서사, 또는 참전군인들을 영웅화하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 전투이기도 하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를 전쟁영웅으로 만들어, 한미군사동맹, 즉 혈맹관계의 안보연대를 구축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던 전투이다. 한국사회에서 맥아더 장군은 승리의 상징이고, 이후 한국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이며, 한국의 반공주의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런 전쟁 신화적 이미지 때문에 맥아더와 관련된 기록이나 서사는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 이어진다. 1953년에는 영문학연구자이며 비평가였던 최재서에 의해 전기가 씌여지기도 하고,<sup>2)</sup> 1957년에는 인천의 만국공원에 맥아더 동상이 세워지면서, 공원의 이름을 자유공원으로 바꿔 맥아더 신화를 인천의 상징으로 만들기도 한다.<sup>3)</sup> 2016년에 제작된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이르기까지 맥아더와 인천상륙작전은 여러 서사적 콘텐츠로 활용되면서 한국전쟁의 상징물로 자리잡았다.<sup>4)</sup>

2) 맥아더와 관련된 최재서의 전기적 기록은 정종현, 『최재서의 '맥아더' -맥아더 표상을 통해 본 한 친일엘리트의 해방전후』, 『동악어문학』 59, 2012.8 참조.

3) 이희환, 『반공도시 인천과 맥아더 동상의 냉전 정치학』, 『황해문화』, 2017 겨울 참조.

4) 정영권, 앞의 글, 김남혁, 『데탕트 이후 영화의 한국전쟁 재현 양상에 대한 연구』, 『비평문학』

한국전쟁 관련 서사와 담론 구성에 인천상륙작전이 차지하는 의미는 남한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북한군에게 인천상륙작전은 처절한 패배와 수많은 인민군의 희생을 안겨준 방어전투였기에, 숭고한 희생정신이 발휘된 ‘월미도 전투로서 신화화된다. 영화 <월미도>에서는 엄청난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대원이 죽음을 각오하고 맹렬히 전투에 임하여 인민군이 후퇴할 수 있도록 방어전이 되었다는 영웅서사로 재현된 바 있다.<sup>5)</sup> 살벌한 전투 현장에서 울려퍼지는 어린 소녀의 고향을 그리는 노랫가락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감성과 인간미를 한껏 북돋는 방식으로 인민군 부대의 영웅성을 드높인다는 점에서 북한영화사에서도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로 알려져 있다.<sup>6)</sup> 서로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에서 인천상륙작전은 각각 대립적인 의미구조로서 한국전쟁을 서사화하는 미적 감성의 원천으로 활용된 셈이다. 한국전쟁이 정치권력화에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던 남북한 사회구조에서 인천상륙작전(월미도 전투)은 정반대의 전쟁신화를 구축함으로써, 님은 꼴처럼 서사적으로 활용된 전투이다. 맥아더 신화로 압축되어 상상되는 남한의 ‘인천상륙작전’은,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를 고착시키는 전쟁신화를 부추겨 냉전을 영속화시키고 적대감을 내면화하는 냉전의식의 최고점에 해당한다.

맥아더 신화는 상식으로서 일반인의 의식 속에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인천상륙작전은 승리의 결정적 기억으로 기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탈냉전적 상상은 가능할 수 있을지 질문해보는 것은 우연이 아

』 74, 2019 참조.

5) 월미도 전투를 형상화 한 『불타는 섬』과 <월미도>의 장르적 특성과 서사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로는 이선미, 『북한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 비교연구』, 『현대소설연구』 21, 2004 참조.

6) 북한영화 <월미도>는 전대원의 희생을 영웅화하여 월미도 전투를 한국전쟁의 상징처럼 미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영화의 사회적 의미가 그러하듯이 체제 선전이나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어, 많은 북한주민들이 월미도 전투를 영화의 서사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손석춘, 『인천상륙작전의 소통과 치유 -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70, 2017.6 참조.

닐 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냉전’의 관념이 ‘상식’으로서 내면화된 사회에서 인천상륙작전이 만들어내는 냉전적 상상을 ‘탈냉전’의 자장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을까? 웹툰 〈인천상륙작전〉은 이런 문제의식과 닿아있다.

2013년에 웹툰으로 연재되고, 2014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윤태호의 〈인천상륙작전〉<sup>7)</sup>은 한국전쟁의 냉전 인식을 조금씩 흐트러뜨리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인천상륙작전의 ‘사실(fact)’을 제안한다. 이미 전쟁신화로 재편된 전쟁의 공식 기억이 아니라, 적군과 아군의 구별없이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이나 미군의 공중폭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논증하듯이 인물의 삶으로 서사화한다. 남한사회의 적으로서 실체화된 ‘빨갱이’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해방 후부터 정치적 세력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논증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탈냉전과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전쟁신화를 중심으로 인식되었던 전쟁인식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전쟁 담론들이 붓물처럼 터져나온다. 대표적인 전쟁신화를 만들어낸 인천상륙작전 역시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제기되는 전쟁 피해사실이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한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며, 미군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된다.<sup>8)</sup>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신화는 이런 세계적인 혹은 국내적인 환경의 변화

7) 〈인천상륙작전〉은 2013년 네이트 웹툰으로 연재되고, 2014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이후 2017년 다음에서 재연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웹툰의 형식적 특성이나 미적 의미를 전제하면서 서사를 분석하기보다는 냉전문학의 지평에서 〈인천상륙작전〉이 지닌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인천상륙작전〉의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웹툰의 형식적 특성과 관련된 서사적 의미 역시 중요하며, 이는 추후 연구를 미룬다.  
8) 남북정상회담, 전쟁시군작전권 반환문제 등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계기로 제기되는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냉전적인 전쟁 인식을 전화시킬 수 있는 일차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신화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일이어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인식전환 속에서 만이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속에서 새로운 서사로 확장되면서 냉전문학의 좌표를 바꾼다. 21세기 초의 가장 주목받는 서사장르인 웹툰으로 완성된 윤태호의 〈인천상륙작전〉은 남한사회의 여러 변화적 요인 속에서 새롭게 구성된 인천상륙작전의 관념을 제안한다.

## 2. 한국전쟁의 앎(지식), 사실(fact) 복원의 가능성과 인천상륙작전

한국전쟁 50주년에 맞추어 2000년에 발간된 『전쟁과 사회』의 저자 김동춘은 한국전쟁의 이면, 즉 전투가 아닌 전쟁, 정책으로서의 전쟁이 한국정치와 한국사회를 한꺼번에 이해하는 현미경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9)</sup> 전투 현장이 아닌 전시의 일상을 규율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정책으로서의 전쟁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가 한국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해명하기 위해 예로 들었던 모운숙과 김성철의 인민군 점령 3개월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개인의 경험은 각자의 자리에서 겪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험은 공식 기억으로 채택되는 반면, 어떤 경험은 적의 것으로 구별되는 순간, 전자는 권력이 되고 ‘물질’이 되어, 다른 경험/앎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sup>10)</sup> 김동춘은 한국전쟁의 경험 자체보다는 어떤 경험이 공식화되어 다른 경험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정책, 혹은 통치방식으로서 ‘전쟁 관념’을 문제시한 것이다. 1990년대까지 한국사회의 전쟁담론은 이런 한편의 경험/지식의 권력화로 인해 전쟁 사실(fact) 자체에 대한 연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전쟁과 사회』는 이런 문제의식의 결과물로서, ‘피난, 점령, 학살’의 영역으로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구성하며, 그 각각의 자료를 전쟁의 사실(fact)로서 제시한다.

이 책은 전쟁경험을 ‘들춰낸다’<sup>11)</sup>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전쟁 50주

9)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10, 43면 참조.

10) 김동춘, 위의 책 27면 참조.

년에야 비로소 전쟁의 사실이 공론화되었다는 점 때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책은 전쟁경험을 객관적인 사실(자료)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의미있는 작업이 되고있지만, 전쟁을 겪고 50년이 지났음에도 전쟁기에 겪었던 일들이 말해지지도 못할뿐더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연구되지 못했던 한국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더 중요한 사실을 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사실(fact)을 복원하는 작업이라는 『전쟁과 사회』의 출간은 그 자체로 한국전쟁이 전쟁 이후 50년간의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왔고, 공식 기억 바깥에 있는 수많은 학살자의 가족과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를 되문게 만든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봉인된 경험과 사실을 들춰내어 한국전쟁의 사실을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경향은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연결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생겨났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았던 피해자들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고,<sup>12)</sup> 국기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으로써 작은 변화들이 시작된다. 이런 1990년대의 변화가 디딤돌이 되어, 2000년대에 많은 학살 피해 현장이 발굴되고, 증언과 연구자

11) ‘들춰낸다’는 것은 한국전쟁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었고,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어떤 지식, 어떤 기억이 공적인 것으로 전체적 지배력을 장악하고 합의된 듯이 소통될 때, 그 반대적인 삶의 영역에 있는 당사자들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당k자들의 실존은 덮어둔 채로 들춰지지 않는 삶이 된다. 한국전쟁의 사실(fact)을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 덮여진 사실들을 들춰내는 것과도 같다. 윤태호의 웹툰은 이 ‘들춰내기’의 방법이 사건의 구성이나 인물의 성격에 작동한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기〉는 이런 사유와 방법론이 전면화된 웹툰으로 윤태호 작품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천상륙작전〉은 이런 방법론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박기수, 윤태호 웹툰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인문콘텐츠 47, 2017.12, 『윤태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참조.

12) 박완서의 1989년 소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30여년 동안 발설하지 못했던 전쟁의 기억이나 전쟁 후 냉전 정치의 폭력성에 대한 기억을 여전히 발설하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는 노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2000년대에야 비로소 조금씩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한국사회와 전쟁의 관계를 말해준다. 전쟁 이후의 정치는 전쟁보다도 더 큰 재앙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공모’의식과 마음의 정치 - 1987년 이후와 박완서 소설의 1970년대 서사』,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14.08 참조.

료들이 발표되며, 국가적인 규명작업과 함께 피해사실들이 공론화된다.<sup>13)</sup> 그렇지만 새로운 사실들이 곧바로 역사적 인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는 사실과 사실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다. 그 중에서도 미군과 관련된 노근리 사건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파장도 컸지만, 미국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나 유족들이 숨죽이고 스스로 피해사실을 발설하지 못했던 고통이 더 큰 울림을 던지기도 했다.<sup>14)</sup>

한국전쟁 관련 공식 기억에 대항하는 다양한 서사가 생성되기 시작한 것도 1987년 이후 1990년대의 커다란 변화 중 하나이다. 1993년에 김성철의 6.25 일기인 『역사앞에서』가 출간되었으며, 1992년에는 박완서의 자전소설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출간되었고, 인민군 포로의 경험을 소설로 담아낸 이호철의 『남녘 사람 북녘 사람』도 1996년에 출간된다. 그리고 1994년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인 정은용의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도 실록소설의 형식으로 출간된다. 개인적인 일기나 소설의 형식이지만, 민주화 이후 1990년대 한국사회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공식 기억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사회적 담론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공공연히 공론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단계로 진화한 지표로 읽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2000년대 역사학/사회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이런 서사물들의 출간과

13) 한국전쟁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밝혀지는 과정, 국가의 진실규명과 해명의 과정, 피해자 보상문제 등은 피해자와 공권력, 재판과정 등 많은 권력관계와 거기서 파생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다. 한성훈, 『가면권력』, 후마니타스, 2014 참조.

14) 노근리 사건을 다룬 영화 <작은 연못>은 끔찍한 학살의 상황과 무력한 피학살자들의 고통이 드러나는 잔인한 학살의 현장을 서정적인 이미지와 음악을 활용하여 동화처럼 표현한 독립영화이다. 가장 극한의 고통은 감각적 자극 자체보다 고통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못하는 무력감일 수 있다. 판타지 기법을 활용한 동화적 장면들은 사실적인 끔찍한 장면 사이사이에 끼여들어 극한의 고통 속의 무력감을 맑은 정서로 정화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든다. 노근리 사건을 다룬다는 정치적 부담을 미학적으로 해결한 듯한 장면이며, 실제로 영화 제작 기금을 마련하게 위해 수 년동안 촬영이 지연되었던 영화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본격화된다. 『전쟁과 사회』는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생겨나면서 국민보도연맹을 비롯한 예비검속이나 학살과 관련된 한국전쟁의 공식 기억과 전쟁 신화를 뒤흔들고 균열을 낸다. 인천상륙작전도 이 변화의 끝자락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공식 기억을 대표하는 전쟁신화로 이미지화되어, 승리의 전쟁경험 이외의 경험이나 사실이 전혀 밝혀지지도 않고, 논의되지 않은 경우이다.<sup>15)</sup> 게다가 ‘맥아더 동상’이 만들어져 맥아더 신화가 한국전쟁 관념의 중심 역할을 해왔기에 더 그러하다. 맥아더 신화가 한국전쟁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구축된 만큼,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이나 미군의 과도한 공중폭격, 그로 인한 인천 월미도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데 복잡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sup>16)</sup>

2002년에 출간된 『한국 1950년, 전쟁과 평화』에서 인천상륙작전은 자료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sup>17)</sup> 또한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한 미군이나 한국군의 수기나 회고록이 발표되면서 작전의 ‘준비와 계획’을 중심으로 수행되던 연구도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해명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맥아더를 전쟁 영웅으로 신화화하는 인천상륙작전 관련 지식이 실상과는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며, 실제로 작전이 수행된 과정이나, 미군과 함께 영흥도에 투입된 첩보부대의 활동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민간인 학살, 즉 월미도 공중폭격으

15) 전쟁의 현장, 즉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이 기록된다는 것은 주로 소설과 같은 허구적 문학 창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허구적 서사물로 전쟁이 재현될 때는 전쟁의 극적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쟁의 사실들이 재편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상륙작전을 다루고 있는 이무영의 전쟁소설 『변모』(1957), 『해후』(1957)(최영호 편저, 『바다의 대화』, 해군사관학교, 2010) 등에서 전쟁의 사실은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를 고조시키는 극적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실들만으로 전쟁을 묘사한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월미도 전투는 적들의 시신을 통해서만 확인될 뿐이며, 민간인의 피해는 인민군의 총살로만 표현된다.

16) 이희환, 앞의 글, 참조.

17) 박명림, 『한국 1950년,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395-396면.

로 인한 피해도 이 시기에 공론화되었다.<sup>18)</sup>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발판이 되어, 월미도 폭격은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항공공격보고서가 보고됨으로써 진실규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어렵게 민간인 폭격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절차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여전히 밝혀져야 할 전투로 남아있는 현재진행형의 ‘과거사’이다.<sup>19)</sup>

이렇듯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연구나 기억서사는 모두 ‘들춰내기’와 같은 담론적 양상과 효과를 지녔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정치상황 변화와 더불어 2002년 인천을 평화도시로 선포한 인천시의 정책 변화 속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논의로까지 이어진다. 2005년에는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통해서 인천시의 갈등으로 부상하며, 남남갈등의 양상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sup>20)</sup> 역사적 자료의 발굴이나 학살 현장의 발굴과 같은 실질적인 작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작업을 증거로 제시한다고 해서 사실이 밝혀지고 규명될 수 없는 한국사회 냉전 구조의 속사정이 드러난 전형적인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이나 민간인학살 피해규명과 같은 한국전쟁 학살의 사실과 피해규모 등은 아직도 여전히 발굴되고 있거나, 국가에 의해 인정받지

18) 맥아더 신화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인천상륙작전 관련 회고록이나 연구논문에 관한 연구는 이상호·박정진,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정보 작전』, 『정신문화연구』 36, 2013.9, 289면 각주 4) 참조.

19) 이희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의 아픔』, 『황해문화』, 2010. 가을 참조.

20) 김동춘은 10년 뒤 전쟁과 사회 개정판을 내면서 이 달라진 상황을 언급한다. 맥아더 동상과 관련된 분쟁은 김진웅, 『맥아더 장군의 제2의 인천상륙작전: 동상을 둘러싼 분쟁의 함의』, 『역사교육논집』 39, 2007.08 참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 정권의 부역자로 알려진 이은상 역시 마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인으로 추대되는 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의 부딪혀 좌절된 인물이다. 한국사회에서 남남갈등은 전국 어디에서나 만나게 되는 흔한 일이기도 하다. 냉전사회를 거치면서 이런 갈등적 요인은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남도 민일보 이은상·조두남논쟁편찬위원회, 『이은상 조두남 논쟁』, 불휘, 2006 참조.

못하고 있다.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 아직도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냉전의 정치구조, 빨갱이라는 낙인이 지닌 사회적인 의미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겠지만, 친일파가 반공주의자로 변신했던 권력주체의 문제, 점령과 수복으로 인한 전선의 이동과 부역자 처벌이 한 마을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민간인에 대한 폭격과 학살을 인정해야 국가적 보상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절차적 문제로 인해 학살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등, 한국전쟁을 전후한 냉전사회의 정치논리가 여전히 지금 여기의 삶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란, 수십 년이 넘는 ‘냉전’의 시간동안 봉인되었던 저간의 맥락이 들춰져야 ‘사실’이 구성되는 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폭력의 흔적을 들춰내고 실체화시켜야만 비로소 사실(fact)이 구성될 수 있다. 밝혀지지 못한 사실들 위에 썩어 썩어 쌓인 삶은 미묘한 방식으로 뒤틀려 수십 년 동안 냉전사회와 ‘마음’을 만든다. 적군의 점령과 아군의 수복을 반복하면서 전선이 바뀌었던 사실, 그 정부는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정부가 아니라 우연적으로 구성된 권력의 주체라는 사실,<sup>21)</sup> 점령하의 적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예단’과 예비검속,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발(밀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 부역자 삶의 구조, 이런 삶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겪어야 한다면 온전히 자아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맥아더 신화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폭로전을 방불케하는 내부 전쟁을 거치고서야 진상(眞相)에 이를 수 있는 인천상륙작전은 인민군의 점령지를 수복하여 부역자를 처벌하는 한국전쟁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 본격화되는 사건이기에 진실규명의 과정

21) “군의 작전은 정치체제의 행정이 미치는 경계를 중심으로 ‘적’과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수복하지 못한 적성 지대의 주민은 ‘네편(적)’으로 설정되었다. 일단 상대편으로 규정되면 군 경의 토벌작전은 민간인과 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내전과 같은 전투 과정에서는 전선의 이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치체의 경계도 달라진다. 따라서 통치권력은 그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위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선이 이동, 전투의 결과에 따라 형성되었을 뿐이다.” 한성훈, 앞의 책, 14면.

이 지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구적 서사의 형식을 취하는 윤태호의 웹툰 〈인천상륙작전〉은 새로 드러난 사실(fact)을 공론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작은 시도이다.

### 3. 밀고자/부역자로부터 시작되는 〈인천상륙작전〉

한국전쟁을 사실(fact)에 근거하여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는 1986년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가 소개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적으로 전개된 한국전쟁 인식의 전환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전쟁신화적 상상이 상식으로 통하는 냉전사회의 일상적 문화 속에서 탈냉전이나 평화적 상상을 향한 전쟁 서사는 흔치 않다. 한국전쟁 전후의 빨치산 활동과 사회주의 사상을 다루어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었던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쏟아진 검열과정은 냉전사회의 창작과 관련된 저간의 사정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았던 〈태극기 휘날리며〉만 하더라도 서울 수복후 부역자 처리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전의 전쟁서사와 달리 전쟁의 사실들이 다루어지는 경향은 있으나, 형제의 육친애를 훼손하는 인민군의 잔혹한 ‘인성’을 문제삼는 식으로 냉전적 전쟁 인식을 답습한다. 한국전쟁의 사실적 논증과 인식의 확장에 걸맞는 전쟁 서사의 창작은 전쟁신화적 냉전 인식과 대결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예측되는 일이어서 창작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검열이라는 제도적 장치만큼이나 사회적 금기를 의식한 자기검열의 작용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리라.<sup>22)</sup> 허구적 장치와 사실적 자료의 나열이 복합적으

22) 빨치산 문학이나 사회주의자 형상과 관련된 한국사회 검열의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된 역사적인 문제이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임경순, 『70년대 문학검열의 작동방식과 문학의 두 얼굴』, 한국문학연구 49집, 2015.12 참조.

로 어우러지는 서사로서 〈인천상륙작전〉은 이 상식적 관념에 저항하는 전쟁 서사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1945년 ‘해방’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해방과 관련된 조선의 상황을 미화하지 않고 직시하려는 현실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해방’과는 반대편의 지점에 놓여진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관점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sup>23)</sup>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풀려났다는 의미의 해방은 식민지배권력의 피해자 입장이 반영된 용어이다. 식민권력의 편에서 살았던 친일부역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해방과 혼란’이라는 소재목이 붙여진 첫 장은 친일부역자인 상배의 자리에서 시작함으로써, 해방을 ‘혼란’으로 해석한다. 이 시작점은 〈인천상륙작전〉이 어떤 이야기일 것인가를 알려주는 결정적 요소이다.

상배는 “순사 뒤꽂무니를 계속 쫓아다니다간 큰 변을 당할 것이”라는 형의 경고에 반발하면서, “세상만 바뀌었지 사람은 그대로 아니냐고” 항변하고 “건들지도 못할 사람이 되면 되지”<sup>24)</sup>라고 답하며 더 큰 부역자를 밀고하는 자로 변신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해방이란 주로 식민지배 하에서 폭력의 피해자였던 조선민중의 삶을 공론화하거나 울분을 해소하는 일로 표현되었지만, 상배의 형상은 완전히 뒤바뀐 세상에서 살아남은 친일부역자들의 문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중요한 삶의 문제였음을 부각킨다. 식민지 피해대중과 권력자,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등의 윤리적 이고, 가치론적인 구별로 해방 후의 사회와 인간의 문제를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런 경계에 놓여있는 삶이 더 일반적일 수 있다는 관점의 현실인식이다.

식민권력에 기생하여 살아남는 과정에서 동물적 감각으로 이 편과 저

23) 해방은 사실 조선의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이 연합군과의 대결에서 항복함으로써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미군정의 통치 하로 재편되었던 사건이 1945년 8월 15일의 일이다. 정확한 표현은 미군정의 시작이다.

24) 윤태호, 〈인천상륙작전〉1권, 한겨레출판사, 2014, 13면.

편에 걸쳐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내면화한 상배에게 해방 후의 상황은 이런 생존의 감각을 더 깊이 각인시키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세상’이 바뀌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권력 만이 어떤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신념처럼 내면화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청산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이 시기는 선과 악을 구별해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였다. 그래서 “모두가 비겁했던 사회보다 모두가 정의로워진 사회가 훨씬 두렵다”<sup>25)</sup>는 서술자의 자의식이 등장하기도 한다. 〈인천상륙작전〉은 이런 해방 정국의 삶의 상황, 어느 시기보다 선과 악이 구분되어야 하고, 정의와 정치적 모략이 구분되어야 하는 시기이지만, 그런만큼 그 구분이 쉽지 않고, 오히려 넝쿨처럼 얽혀있는 시기라는 점을 통해서 분단과 전쟁을 이야기한다. 상배는 바로 이런 삶의 문제를 압축한 인물이다.<sup>26)</sup>

삶이란 그물망 같은 사람들의 얽힘이고, 사람들의 얽힘은 욕망의 얽힘이고, 각각의 경험이 담긴 순간의 얽힘이고, 경험이란 수많은 욕망과 동기들과 어쩔 수 없음과 절망,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순간들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지속되는 어떤 것의 총합이기도 하지만, 이 총합은 순간순간에 형성된 것들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질적이기도 하고 양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질적인 것이 균질적이지 않기에 양적인 것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천상륙작전〉은 상배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25) 윤태호, 〈인천상륙작전〉1권, 165면.

26) 한 인간이 ‘악한’이라 하더라도 그 악성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악’을 그 인물의 절대적 인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 서사문학(소설)은 인물의 성격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이 악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석한다. 친일부역자인 상배의 악성은 한국근현대사를 인간과 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해석하는 서사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영국의 문학이론가 테리이글턴은 ‘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악한의 악성에 개입하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는 테리이글턴의 『악』(이매진, 2015) 15-27 참조.

이 관계적 삶의 얽힘을 통해 해방을 ‘혼란’으로 해석한다. 전쟁은 해방으로 인해 생겨난 ‘혼란’의 흐름을 이어, 그 삶의 문제들을 증폭시키는 현대사의 사건이라는 해석이다.

친일부역자 김상호 역시 이편, 저편의 두 가지 적대적 관계의 삶을 모두 안고 있는 인물이다. 처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편인지 저편인지가 불분명한 채 그것 자체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인물이다. 친일부역자이면서 밀고자이고, 빨갱이 부역자이면서 밀고자로 살아가는 김상배와 적산처리과정에서 수많은 일본 자본을 빼돌려 정치적 자금(독립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김상호의 삶은 그 자체로 또한 얽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삶으로 파장을 만들어낸다. 해방이란 친일부역자와 연결된 삶을 은폐하고, 전환하고, 위장하고자 하는 혼란의 시간이며, 〈인천상륙작전〉은 그런 시간을 살아낸 인물을 통해 해방의 의미를 구성한다.

사실, 이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쳐 해방에 이르고, 독립국가를 건설한 대한민국의 권력 주체의 문제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방이라는 시기는 결국 조선인들에게는 새로운 통치권력을 맞이하는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의 논리가 절대화되고, 미군정이 식민권력을 대신하는 형식의 해방이었기에, 식민지의 경제적 주체가 권력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였다. 따라서 친일파로 살아가면서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이중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김상호가 해방 후 정치권력과 연결되는 과정은 친일파가 해방후 한국사회의 주체로 부상하는 문제를 압축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친일파가 다시 사회적인 입지를 만들고, 미군정은 노골적으로 친일파와 협력을 도모한다. 〈인천상륙작전〉의 친일부역자 서사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에 이승만 정권의 통치과정으로서 복진통일, 반공주의 정책, 빨갱이 타도의 과정이 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전면화할 수 있는 장치로 역할한다. 적과 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아가 구분되기 어려운 삶의 상황, 특히 친일파가 ‘우리편’이 되어가는 상황, 친일파가 정

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해 전쟁을 통해서 더 노골적으로 빨갱이를 적으로 몰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서사이다. 냉전사회의 ‘적’은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해방과 혼란의 시기부터 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점령과 수복, 재점령기가 교차되는 한국전쟁을 통과하면서 점점 적의 실체를 사회적으로 구성해간다.<sup>27)</sup> 냉전은 바로 이것이 공고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적’을 통해 일상이 재편되는 과정이다. 점령과 수복이 집약된 〈인천상륙작전〉은 그 과정의 압축판이다.

“빨갱이 사냥에는 도가 텃다는 거 아니겠는가? 반민특위로 우리가 이리 움츠리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지금 우리나라에선 일제 앞잡이보다 빨갱이가 더 문제아니냐고. 우리도 잠자코 있을 게 아니라 빨갱이 소탕에 앞장서야지.”<sup>28)</sup>

친일파이면서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몰래 지원했던 김상호의 정치권력 복귀과정과 권력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런 “빨갱이 소탕”<sup>29)</sup> 프로젝트로 인해 빨갱이는 남한사회의 반국가적 불온집단으로 호명된다.<sup>30)</sup> 미군정기의 남한사회는 친일파가 빨갱이를 적으로 규정하는 사회로 재편되었고, 〈인천상륙작전〉은 해방 정국, 한국전쟁기의 보도연맹원 학

27) 김득중은 빨갱이는 존재가 있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기보다는,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는 등,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28) 윤태호, 〈인천상륙작전〉3권, 91면.

29) 〈인천상륙작전〉에서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 공산당원, 빨치산)는 통칭 ‘빨갱이’로 지칭된다. 이 논문은 작품에서 통칭된 방식을 따라서 빨갱이를 사용한다.

30) 박명림은 “한마디로 모든 지역에서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보면 틀림없을 정도였다. “만들어진 공산주의자들”도 부지기수였다.”고 말하며, 한국전쟁 시의 부역자 처벌과 학살과정에서 공산주의자, 즉 빨갱이로 만들어진 평범한 사람들의 피해가 막대했다고 설명한다.(박명림, 앞의 책, 342면) 김득중, 앞의 책 참조.

살 사건 등의 새로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을 논거로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서사화한다. 친일파와 빨갱이가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는 전선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며,<sup>31)</sup> 한국전쟁은 친일부역자의 정치적 복귀를 위한 생존의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발견되기도 했던 것이다. 즉 친일의 행적을 지우고 새로운 국가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빨갱이를 처단하는 ‘애국자’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건 정체성 증명의 과정이며, 인정투쟁이었던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제2권은 1권의 문제의식을 이어, 전쟁의 성격을 만들게 되는 전쟁 직전의 사실, 즉 ‘빨갱이’가 전면적인 악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관념이 생겨나는 계기적 사건들이 역사적 기록의 형식으로 나열된다. 정관사 위조화폐사건, 49년 10월 대구의 쌀폭동, 1947년 9월 12일자 독립신문의 빨갱이 기사로 본격적인 빨갱이 담론이 시작되는 점, 1948년 10월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과정 등, 친일파가 점차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친일의 경력을 지우는 방법으로 빨갱이를 만들고, 빨갱이를 반국가적 이적집단으로 타자화하는 점진적인 사회적 과정이 다루어진다.



〈인천상륙작전〉 2권 104-105면, 198-199면.

31) 이혜령은 친일파의 반대는 독립투사가 아니라 빨치산이라는 설정을 통해 한국사회 냉전구조와 권력화 문제를 해명한 바 있다. 이혜령, 『빨치산과 친일파 - 어떤 역사 형상의 종언과 미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0집, 2017.12 참조.

이렇듯 공식 기억을 문제시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 새로 발굴된 자료와 연구가 객관적 자료로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친일파와 빨갱이의 미묘한 정치적 대쌍관계는 정확한 자료와 정밀한 해석을 통해 야만 겨우 공론장에 진입할 수 있는, 냉전 관념에 반(反)하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위의 장면들처럼 새로 발굴된 자료와 연구를 낳 것 그대로 역사적 기록인 듯이 제시함으로써 상식화된 전쟁 인식에 반하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서울 수복 후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공산주의 부역자 처리문제는 이 “빨갱이 소탕”의 권력화 과정과 직결되는 정점의 사건이다. 객관적 자료의 나열이라는 서사적 특성은 이런 역사적 과정을 ‘사실’로서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부역자와 밀고자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사회적 맥락은 이런 사실 기록의 서사를 거쳐 비로소 역사적 실증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상배는 해방이 되고서 친일부역자의 정체성을 세탁하기 위해 먼저 나서서 친일파를 처단했듯이, 인민군 점령시에는 먼저 나서서 ‘반동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 나서고, 국군이 점령할 시에는 먼저 나서서 빨갱이를 때려잡는다. 친일부역을 만회하기 위해 더 먼저 박수치고, 더 극렬하게 (빨갱이)밀고자가 된다.<sup>32)</sup> “재빨리 동무가 된 이들 때문에 동무가 아니어서 죽고 동무가 아니어야 해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부역자/밀고자의 정체성 구조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공동체 안에서 동료들이나 이웃과의 관계로 확대재생산된다. 좌익에서 전향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 전향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그악스럽게 “피를 묻히고 다녀”야만 했던<sup>33)</sup> 부역자/밀고자의 세상,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는 ‘부역

32) 상배는 이런 저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천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살았던 상배는 대한민국의 권력주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빨갱이 밀고자가 된다. 그러나 중간에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누구보다도 더 먼저 반동분자를 밀고하고, 그 인민재판에서 박수를 먼저 치는 자로서 살아남고자 한다.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4권 180-181면 참조.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잔인한 '밀고자'의 삶이 평균적 삶이 되어버린 사회였다.<sup>34)</sup>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피난을 갔던 정부가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로 환도하면서 가장 먼저 인민군 부역자를 심사하고 처벌했던 일로 인해 도강파/잔류파라는 분류법이 생겨난다. 결국 서울에 머물면서도 살아남았다는 사실로는 부역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고, 부역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서서 부역자를 밀고해야 하는 그 제로섬의 구조가 서울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성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피난을 못가서 서울에 잔류했던 전쟁 초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잔류파의 자기증명 불가능성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은 한국전쟁의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역자/밀고자의 악순환적 상황은 한국전쟁을 거쳐 진화를 거듭한 끝에 영흥도 주민들의 삶까지 빨아들이며,<sup>35)</sup> 남한사회의 평균적 삶의 형식이 된 셈이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지만, 돌아온 한국정부는 도강파/잔류파의 편나누기를 통해 아비규환을 만든다는 것이 인천상륙작전의 결과물이라는 것,<sup>36)</sup> 이것이 <인

33)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4권, 176-185면.

34) 내전과 같은 전투 과정에서는 전선의 이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치체의 경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마을 안에서 점령과 수복이 교차되어 통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마을 내부의 전선이 생겨난다. 오랜 세월 서로 이웃으로 지낸 사람들은 친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웃의 고발로 적과 우리가 나뉘어지기도 한다.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오랜 세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면서도 서로 얽혀 전쟁 이후의 시기를 살아가기도 했다. 한국전쟁과 한국전쟁 이후의 이데올로기적 분단구조는 마을 공동체에 내부의 전쟁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부역자/밀고자 구조를 떠안긴다.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권현익,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참조.

35) 인천상륙작전 5권 마지막 부분에 형상화된 '인천상륙작전의 끝은 바로 영흥도 주민들 사이에 내부전선이 생겨난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영흥도에 잠입한 첩보부대의 편이 되어 쌀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쌀을 받지못해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인민군 편에 섬으로써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된다. 섬마을 주민들은 첩보부대의 간첩활동으로 인해 이편과 저편으로 나뉘어 전쟁을 치른 셈이다.

천상륙작전〉 서사의 결말이다. 한국전쟁은 평범한 시민들 모두가 밀고자가 되거나, 빨갱이로 고발당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으며,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이 사회적 밀고와 처벌의 과정은 절정에 이른다. 도강파/잔류파 프레임은 부역자/밀고자 구조의 최고지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이 ‘해방과 혼란’으로 시작해서, 서울이 수복된 후 서울의 상황을 ‘아비규환’으로 명명하며 이야기를 끝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정리한 셈이 되었다.

#### 4. 맥아더 신화를 교란하는 월미도 공중폭격 사실(fact)과 문학

친일부역자의 과오를 지우기 위해 밀고자로, 혹은 일본인이 남기고 간 적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하는 건달로 살아가던 상배는 전쟁 중에 상상도 못했던 ‘죽음’을 경험한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쟁의 폭력성과 죽음이 다. 상배는 바닥 인생들처럼 험하게 살다가 의지하게 된 여인 미자를 데리고 피난가던 중, 폭격을 만나 바로 앞에서 여인을 잃는다. 그런데, 친일파 앞잡이로 살면서 많은 조선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심지어 살인을 일삼았던 상배는 이 순간,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죽음의 양상을 발견한다.

일본 놈들 앞에 서서 보란 듯이 죽여도 봤고, 해방되고 나를 지키느라 죽여도 봤고, 꽤다보니 죽은 놈도 있었고, 나를 죽이려기에 죽인 놈도 있었소. 근데..... 이 전쟁이란 게 말이오... 진짜 무서운 게 감정이 안 느껴져. 찢러죽이든, 때려죽이든, 죽이다보면 나한테도 느낌이 전해지거든.

36) 5권은 팔미도 전투이며, 5권에서 인천상륙작전이 완결된다. 마지막 권(6권)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 수복 후 부역자 처벌로 이수라장이 되고, 중공군이 개입하고 1.4후퇴가 시작되는 겨울까지이다. 이 마지막 권의 제목은 “아비규환”이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국군이 수복한 서울을 그 전보다도 더 잔인한 재판과 처벌, 사형이 이루어지는 “아비규환”으로 명명한 것이다.

그래서 한번 죽어보면 다시는 뒤로 못 가. 못 돌아가. 그 느낌 때문에. 어떤 느낌?

악귀가 된... 느낌이랄까.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거. 내 어디 사람같이 삽디까. 근데 미자가 비행기 폭격으로 죽는 걸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요. 비행기가 속 지나가면서 쇠덩이 몇 개 툭툭툭 떨어뜨렸는데... 사람이 죽어. 충하고 칼하고 뭐가 다른지 아우? 칼은 쓰고나면 충격이 오래가. 살이 칼을 붙드는 느낌. 그 살에서 칼을 빼는 느낌. 근데 충은 말이오. 며칠 지나면 감이 없어져. 죄책감은 좀 있겠지만 그것도 처음 쓰는 놈이 그런 거지. 몇 번 쏘보면 그냥 그런가보다 해.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오.<sup>37)</sup>

상배는 비행기 폭격으로 미자를 잃고 충격 속에서 형 상근을 만나 급하게 피난길에 오른다. 그 길에서 다가올 전쟁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가를 놓고 형과 대화한다. 많은 살인을 경험했지만, 죽인다는 느낌을 남기지 않는 폭력, 그리하여 죄의식도 남기지 않는 폭력이란 인간에게 어떤 것일지 상상할 수 없기에 상배는 견잡을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을 떨쳐내지 못한다. 위 인용문에서 고백하듯이, “악귀가 된 듯한 느낌”은 살인을 저지른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는 최소한의 양심의 소리였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남기지 않는 전쟁의 폭력으로서 공중폭격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잔혹한 전쟁을 예감케한다. 국가 폭력의 범주에 포괄될 수 있는 사회적 살인의 주모자였던 상배는 자신이 저지른 공권력의 폭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인류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학살이 한국전쟁의 공권력으로 등장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공포를 느낀다.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공중폭격은 전쟁의 양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정도를 이전과는 아주 다른 단계로 전환시켰다. ‘공중전’은 B-29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할 정도로 공중에서 폭탄

37)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4권, 74-77면.

을 떨어뜨려 전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대량학살과 ‘초토화’를 가능케하는 비행기 폭격이다. 2차 세계대전은 공중전이 본격화된 전쟁으로 알려져있으며, 영국 공군의 독일 폭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근대성은 헤아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운명에 굴복했다”<sup>38)</sup>고 평가될 정도였다. “최종적인 도시 파괴의 규모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훨씬 컸다”고 미국 공군이 스스로 평가할 정도로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공중폭격이 수행된 전쟁이었으며, 대량학살 협약이 지켜지기 전, “어리석고 무자비하게 자율적으로 수행된” 공중전이었다.<sup>39)</sup>

그러나 무차별적 대량학살이 가능한 공중폭격의 능력은 그다지 정밀하지 못하였다. “공개적으로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었지만, 은밀히 평가한 바에 따르면 큰 폭탄들은 절반도 그 표적을 맞히지 못했다. 그렇지만 대기 조건이 좋을 때에 이 폭탄은 화재 폭풍을 일으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sup>40)</sup> 미공군 “조종사들은 비행 내내 불안정한 무선 환경의 전술항공통제씨스템”과 “연료부족의 압박감과 싸우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표적을 찾아내 폭격임무를 완수해야만 했”<sup>41)</sup>다. “순박한 애국심과 막연한 비행에 대한 동경으로 공군조종사가 된 미국의 청년들은 미국의 전쟁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투기기로 육성되어, 과거에는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흰옷을 입은 평범한 민간인들을 향해 무감각하게 폭탄을 투하했”<sup>42)</sup>던 것이다. 간소화된 공군 지원제도를 통과한 미공군 조종사들에 의해 수행된 공중폭격의 민간인 학살은 예견된 결과였다. “공중폭격의 관점

38)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커밍스의 한국전쟁』, 214면 재인용.

39) 브루스 커밍스, 위의 책, 226-228면.

40) 2차 세계대전 시 영국 공군의 독일 폭격은 이에 해당한다. 함부르크, 드레스덴 등은 도시 전체가 파괴된 대표적인 폭격 피해지역이다.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178면.

41) 김태우, 위의 책, 177면.

42) 김태우, 위의 책, 195면.

에서 보자면 노근리사건은 결코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당대의 ‘보편적’ 현상의 일례에 불과”<sup>43)</sup>한 사건이었던 것이다.<sup>44)</sup> 공중폭격으로 인한 죽음을 보면서 무서워 눈물을 흘리는 상배의 일그러진 표정은 이런 저간이 사정이 함축된 장면이다.

그렇지만 남한의 공식적인 전쟁 인식에서 미공군의 공중폭격은 승리의 상징이며, 전쟁신화의 한 장면이며, 적극적으로 환대받아야 할 구원의 이미지이다.

한국민들이 자기 집이 파괴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은 무서운 일이나 그들은 그것을 묵묵히 참고 차라리 가옥이 파괴될지언정 적에게 나라를 뺏기어 독립된 국가에서 자유민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원치 않는다.<sup>45)</sup>

이승만이 1951년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거의 애걸하다시피 미국의 군사지원을 요청했던 이승만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의 공중폭격을 적극적인 공세로 인식했으며, 그것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이었다. 맥아더를 전쟁 영웅으로 신화화하는 냉전사회의 무차별 공중폭격을 가하는 미공군을 낭만적으로 미화하고 환영하는 태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의 위기를 활용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미공군의 무차별 폭격을 승리의 의미로만 영웅화하는 관점과 통한다. 전국토가 ‘초토화’된 북한이 미국을 ‘원수’로 인식하는 것과 비교해볼 만하다.<sup>46)</sup>

43) 김태우, 위의 책, 166면.

44) 박명림은 한국전쟁 시기의 공중폭격은 베트남전 이전에 있었던 엄청난 규모의 공중폭격 사례에 해당하지만, 베트남 전에 비해 별달리 연구되지도 않고, 국제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다 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박명림, 앞의 책, 369면 참조.

45) 이승만의 1951년 인터뷰, 김태우, 위의 책, 5면.

46) 북한에서는 ‘월미도 방어전투’로 불리는 ‘인천상륙작전’은 북한 작가 황건의 <불타는 섬>과 리진우 감독의 영화 <월미도>로 창작된 바 있다. 이 두 작품을 비롯하여 한국전쟁을 다룬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에서 전선은 거의 대부분 인민군과 미군의 대결로 구성된다. 한국군이 적

한국전쟁은 이승만 정권의 이해관계와 미군, 북한군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신화화되고, 기억된 전쟁이었다. 2000년 이후 전쟁자료들이 공개되고, 전쟁의 사실들이 구성되면서, 한국전쟁은 기억과 기억의 전쟁인 듯한 대결구도와 전선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새로 발굴되거나 연구된 자료와 해석이 전쟁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sup>4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논의했듯이, 전쟁신화에 해당하는 냉전적 전쟁인식에 반하는 전쟁의 사실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이나 국가적 복원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현재진행형인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sup>48)</sup> 미공군의 폭격과 민간인 학살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천 지역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못한 상태였으며,<sup>49)</sup> 월미도의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고향에 남아서 인천상륙작전을 맞는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은 월미도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수행된 작전이 아니었다. 소위 ‘월미도 무력화 작전’은 9월 10일 폭격으로 시작되었으며, “민간인 집단 거주지가 있던 월미도 동쪽지역의 집중 폭력(saturation) 또는 전소(burn out)”라는 명령으로 수행되었다.<sup>50)</sup> 〈인천상륙작전〉은 적군의 점령과 수복이 반복되는 민간인 거주지역이 전장과 전선으로 뒤섞이는 과정을 인천, 영흥도, 팔미도, 월미도의 장소성을 구성하면서 한국전쟁의 극적 상황으로 서사화한다.

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47)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참조.

48) 함인덕, 『63년 전의 월미도 미군폭격, 아직도 피난 중인 원주민』, 『황해문화』 81, 2013.12 참조.

49) 신기철,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 - 지역민에게 듣는 웅진이야기』, 역사만들기, 2020 참조.

50) 이희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아픔』, 황해문화 68, 2010.9, 248면.



수복함과 동시에 맥아더 신화를 만들고, 북진을 추진하며, 도강파와 잔류파의 프레임 속에 인민군 점령시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부역자로 검거하기 시작한다.

“대전에서 녹음한 방송으로 서울 시민을 기만하여 결과적으로 피난의 시기를 놓치게 한 것과 한강 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피난길을 막아버린 것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sup>54)</sup>하라는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승만은 “남침 3일 만에 북한에게 서울을 내준 일”을 치욕스러워하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평양 탈환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그리고 결국은 북진담론과 평양탈환을 통해 한강폭파의 과오를 만회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승만 정권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에 급급한 태도로 대응한 것이다.

빨갱이로 의심받지 않으려고 빨갱이를 더 많이 밀고하는 것을 선택하고, 부역자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더 먼저 밀고자가 되는 생존의 논리는, 한강을 폭파시키면서 대전으로 피난갔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중공군을 불러들이는 위험이 예측되는 ‘북진’을 감행하는 이승만 정권의 권력화 방식과 하나인 듯이 연결된다는 것이 〈인천상륙작전〉의 해석이다. 맥아더 신화와 공중폭격의 영웅성은 이승만 정권의 과오를 덮고 영웅적 신화를 만들기 위한 냉전 정치의 시나리오이기도 했던 것이다.

맥아더 신화를 통해 공중폭격을 미화하고 인천상륙작전을 승리의 전투로 신화화하는 일도,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고 미공군의 월미도 민간인 폭격을 공식화하는 일도, 한국 냉전 정치의 현실이다. 강고한 전쟁 신화가 되어 냉전사회의 문화로 스며들어있는 맥아더 신화나 그를 흔드는 맥아더 동상 철거의 쟁점과 갈등은 시작과 끝이 모두 한국사회 내부의 일일 뿐이다. 수십 년 넘게 지속된 냉전정치는 한국사회에 북한을 향한 뿌리깊은 적대감으로 스며들어 있으며, 이는 당연히 혈맹으로서 미국을 향한 우

54) 윤태호, 〈인천상륙작전〉5권, 161면.

55) 윤태호, 〈인천상륙작전〉6권, 106면.

의와 환대로 이어지는 냉전 인식의 핵심이다. 이렇듯 냉전사회의 상식적 관념이 굳건하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에서 다루고 있는 미공군의 월미도 공중폭격을 들춰내는 것만으로도 냉전의 감각을 흔드는 정치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sup>56)</sup>

부역자/밀고자 논리는 미군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전쟁 신화를 통해서 완성된다. 친일부역자가 반공주의자가 되는 맥락은 미공군의 공중폭격이 북한군을 전멸시킨 승리의 경험으로만 기억되는 전쟁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빨갱이 관념 역시 이 논리 속에서 구축된 관념이다. 이 논리는 한국사회의 냉전질서의 근간이 되며, 미국이라는 성역을 만들고 미군과 관련된 전쟁 사실을 봉인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며, 빨갱이를 사회적 타자로 배제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명분이 된다. 이 침묵과 봉인의 논리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며, 사회적 여론과 상식으로 역할한다.<sup>57)</sup> 미군의 공중폭격과 월미도 민간인 피해는 봉인된 사실(기억)이며 반공사회의 부역자/밀고자 논리와 연결되는 은폐된 진상(眞相)이다. 〈인천상륙작전〉은 파괴적인 공중폭격의 이미지로 인천상륙작전의 승리 신화에 그늘을 드리우고, 진상(眞相)에 다가가고자 하는 서사적 기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56) 월미도의 공중폭격이 중요한 전쟁 사실임에도 수십 년 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문제는 영국군의 독일 폭격과 같은 엄청난 재난 상황에서도 발견되는 일이다. 독일 작가 W.G 제발트는 독일정부가 국제정치관계에서 자국에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폭격 피해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공중폭격의 피해를 감정적 해석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강연문을 발표한다. 맥아더 신화를 만들고 정치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승만 정권이 월미도 공중폭격이나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은폐하는 문제는 독일 정부에서 영국 공군의 공중폭격을 공식 기억에서 배제하는 전쟁 정치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W.G 제발트, 『공중전과 문학』, 문학동네, 2013 참조.

57) 미공군의 월미도 폭격이 공론화되고 맥아더 동상 철거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효순이·미순이 사건으로 전사회적 반미의식이 고조되었던 시기 이후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맥아더 신화를 비판하고 사실(fact)을 논의하는 일은 한미동맹이라는 한국사회의 성역(聖域)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야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이다.

## 5. 인천상륙작전의 ‘그늘’을 인정한다는 것, 탈냉전과 평화의 감각 만들기

냉전의 세계질서가 무력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남과 북이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 놓여있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을 대표하는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신화를 연상시키는 사건이다.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맥아더 신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상체계는 상식적인 대중 관념이 되었으며, 역사교육 현장의 중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인천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맥아더를 떠올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이다.<sup>58)</sup> 2016년 상영된 영화 〈인천상륙작전〉<sup>59)</sup>에 등장하는 맥아더와 그를 전쟁 영웅으로 존경하여 군인이 되고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한국군 장교와의 관계 역시 맥아더 신화의 틀을 그대로 잇고 있다. 1957년 인천 만국공원에 맥아더 동상이 세워질 무렵이나 2016년 탈냉전의 시대에나 맥아더 신화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냉전구조 한편을 차지하는 냉전의 상징이다.

그러나 탈냉전의 정치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러 방면의 변화를 만들었으며, 맥아더 신화와 같은 냉전적 전쟁인식을 교정할 수 있는 자료와 관점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사회운동 분야, 연구분야, 나아가 국가제도 차원에서 냉전을 고착화하는 한국전쟁 인식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사실(fact)’들이 밝혀지고 공론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국가적 진실규명 과정에서 월미도 민간인 공중폭격 사실도 규명되었다. 이 과정

58) 1998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서규환 교수가 인천지역 청소년 1,170명을 대상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인물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맥아더는 20.3%를 얻어 비류백제의 시조 비류의 4.3%를 밀쳐잡치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정중현, 앞의 글, 194면.

59) 윤태호의 〈인천상륙작전〉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2014년 직후인 2016년에 상영된 이재한 감독의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여서 비슷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야기 전개나 ‘인천상륙작전’ 사실에 관한 이해가 전혀 다른 영화이다. 특히 정치적 인 관점이나 역사적 인식이 전혀 다르며,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신화가 과도하여 미국을 우상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을 배경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생겨나기도 했다. 윤태호의 〈인천상륙작전〉은 ‘전쟁 서사’의 형식으로 2000년대 이후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사실(fact)’ 논쟁을 정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친일부역자인 주인공 상배는 친일부역을 지우기 위해 반공주의자로 살아남는 비겁한 밀고자의 삶에 적응하고, 이념의 편 가르기가 사실상 권력의 편에서 살아남는 과정임을 터득해간다. 그러나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최소한의 의식도 생겨나기 어려운 ‘공중폭격’의 살인을 통해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승리의 전쟁으로 신화화된 인천상륙작전의 또 다른 ‘사실(fact)’을 전면화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다. 부역자/밀고자 프레임을 정식화하는 계기가 된 서울 수복, 그 결정적 전투였던 인천상륙작전은 도강파/잔류파를 만드는 이승만 정권의 냉전 정치 시나리오에 의해 미공군의 월미도 민간인 공중폭격마저 적군을 전멸시키는 혁혁한 승리의 성과로만 기억하도록 기록되었다. 냉전문학을 대표하는 인천상륙작전 서사물들은 이 냉전의 전선인식과 승리의 경험으로 전쟁 관념을 만들었다. 웹툰 〈인천상륙작전〉은 이 공고한 냉전 관념의 틈을 비집고 새로 발견된 사실(fact)을 퍼즐처럼 끼워맞추어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전쟁의 기억을 바꾼다. 한국전쟁을 승리로 전환시킨 최고의 전투 ‘인천상륙작전’은, 환도한 정부가 피난가지 못한 사람들을 적과 구분하기 위해 실시한 ‘부역자 처벌’과 상륙을 위해 시도되었던 엄청난 ‘미공군의 공중폭격’ 사실들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해방이라는 혼란의 시기에 친일부역자의 삶을 보상하기 위해 안간힘쓰며 살다가 월미도 공중폭격으로 생으로 마감하는 상배의 삶은, 인천상륙작전의 총체적 실상을 구성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이다. 인천상륙작전의 공식 기억이 내비치지 않은 그 역사적 사건의 ‘그늘’일 수 있을 것이다.

윤태호의 〈인천상륙작전〉은 사실(fact) 복원의 방식으로 전쟁신화적 전쟁서사에 그늘을 드리운다. 그리고 이 진실규명 차원의 ‘그늘(이면적 인식)’은 작지만, 냉전의 구조를 흔들고 전쟁 자체를 성찰하게 하는 평화의 상상력을 향한 변화로 평가될 만하다.

## | 참고문헌 |

### 1. 일차자료

- 리진우, 〈월미도〉(영화), 1983.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한겨레출판사, 2014.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 2005.  
이만희, 〈돌아오지 않는 해병〉(영화), 1963.  
이무영, 『변모』, 1957, 최영호 편저, 『바다의 대화』, 해군사관학교, 2010.  
이무영, 『해후』, 1957, 최영호 편저, 『바다의 대화』, 해군사관학교, 2010.  
이재한, 〈인천상륙작전〉(영화), 2016  
황건, 『불타는 섬』, 1953, 신형기·오성호·이선미 편, 『한국문학선집:북한편』, 문학과 지성사, 2007.

### 2. 단행본

- 경남도민일보 이은상·조두남 논쟁 편찬위원회, 『이은상 조두남 논쟁』, 불휘, 2006.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김성칠, 『역사앞에서』, 창비, 1993.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박기수, 『윤태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박명림, 『1950년,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심기철,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 역사만들기, 2020.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4.  
최영호 편, 『바다의 대화』, 해군사관학교, 2010.  
한성훈, 『가면권력』, 후마니타스, 2014.  
권현익(정소영 옮김),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브루스 커밍스(조혜복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현실문화, 2017.  
프리모 레비(이소영 옮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테리이글턴(오수원 옮김), 『악』, 이매진, 2015.

### 3. 논문

- 김남혁, 『태탕트 이후 영화의 한국전쟁 재현 양상에 대한 연구』, 비평문학74, 2019.12, 7-41면.
- 김중국, 『〈인천〉의 제작과정과 영화적 유산』, 한국방송학보, 2014, 167-205면.
- 김진웅, 『맥아더 장군의 제2의 인천상륙작전 : 동상을 둘러싼 분쟁의 함의』, 역사교육 논집39, 2007.08, 1-14면.
- 남원진, 『황건의 〈불타는 섬〉 재론 - 황건의 〈불타는 섬〉의 창작과 변용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5, 471-510면.
- 박기수, 『윤태호 웹툰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인문콘텐츠 47, 2017.12, 89-112면.
- 손석춘, 『인천상륙작전의 소통과 치유 -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비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70, 2017.6, 201-232면.
- 임경순, 『70년대 문학검열이 작동방식과 문학의 두 얼굴』, 한국문학연구 49집, 2015.12, 256-292면.
- 이상호·박성진,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정보작전』, 정신문화연구 36, 2013.9, 287-232면.
- 이선미, 『북한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 비교연구』, 현대소설연구 21, 2004, 275-297면.
-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공모’의식과 마음의 정치』, 반교어문연구, 2014.08, 371-400면.
- 이혜령, 『빨치산과 친일파 - 어떤 역사 형상의 종언과 미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0집, 2017.12, 465-474면.
- 이희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아픔』, 황해문화 68, 2010.9, 244-310면.
- 이희환, 『반공도시 인천과 맥아더 동상의 냉전 정치학』, 황해문화, 2017 겨울, 386-397면.
- 정영권, 『남북한 전쟁영화의 민족 재현 비교연구』, 씨네포럼 11, 2010.12, 185-209면.
- 정중현, 『최재서의 ‘맥아더’-맥아더 표상을 통해 본 한 친일엘리트의 해방전후』, 동학어문학 59, 2012.8, 183-222면.
- 한인덕, 『68년 전의 월미도 미군폭격, 아직도 피난중인 원주민들』, 황해문화 81, 2013.12, 209-220면.

<Abstract>

## Incheon Landing Operation and Cold-War Literature

—Focusing <Incheon Landing Operation (Operation Chromite)>  
created by Yoon-Taeho

Lee, Sun-Mi

Yoon-Taeho's webtoon <Incheon Landing Operation> challenged to the established facts of the Korean War, which have justified of the cause of the war as freedom and have maintained the myth of Korea-U.S. alliance. He explores the cold war archive to open new "facts" of the Korean War. His strategy is to go back to the colonial and liberation period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the war. Pro-Japanese collaborators saved themselves by the false and violent accusation against the alleged communists, and it was returned by the counter-violence during the Korean War. Therefore liberation in 1945 was expressed in confusion. And air bombing of US Air Force is also important during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resident(Rhee Syngman) welcomed and treated the bombing of the US army as heroic. The damage to Korean residents(in Wolmi Island) has not been for a long time. These victims are expressed using factual data in <Incheon Landing Operation>.The webtoon <Incheon Landing Operation> suggested to break the antagonistic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War and to imagine the post Cold War understanding of it.

Key words: Incheon Landing Operation, pro-Japanese collaborator,

communist, cold-war literature, the myth of Korea-U.S., air  
bombing of US Air Force

투 고 일 : 2020년 8월 30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3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